

‘더 CJ컵’ 美 새도우 크릭서 개최 “골프대회 넘어 한식 세계화 무대로”

참가 선수들에 한식 경험 제공
비비고 셰프가 K-Food 파티
“韓 대표 스포츠·문화 플랫폼 육성”

THE CJ CUP(이하 더 CJ컵)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새도우 크릭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특히 미국에서 무관중으로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한식의 진가를 알린다. 안병훈과 이안 폴터는 비빔밥을, 리키 파울러와 키건 브래들리, 그리고 대니 리는 직접 만두를 빚으며 전 세계에 K-Food와 비비고를 알리고, 세르히오 가르시아와 셰인 로리는 젓가락을 이용해 쌀밥을 김으로 싸보는 등 젓가락 사용법을 유쾌하게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대회가 열리는 새도우 크릭 17번 홀에서 처음으로 홀인원을 한 선수에게는 직접 비비고 셰프가 찾아가 선수와 관계자들을 위해 5만 달러에 달하는 K-Food 파티를 열어주는 ‘비비고 셰프고’ 이벤트도 마련된다. 매해 준비



대회장 내 비비고 메뉴를 체험하도록 마련된 비비고 키친에서 메뉴를 고르고 있는 관계자 /CJ제일제당

됐던 이벤트지만 아직 성공한 선수가 없어 올해 과연 17번 홀에서 대회 개최 최초로 셰프고 이벤트를 누릴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비비고는 2018년 더 CJ컵을 시작으로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PGA 투어 주요 대회에서 비비고 브랜드와 K-Food를 적극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총 7개의 PGA 투어 정규대회에 공식 후원 브랜드로 참가했고 특히 더 CJ컵에서 매년 선수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플레이어라운지가 ‘투어 최고의 맛집’으로 선수들에게 입소문이 나

며 대회의 마스코트로 자리잡기도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CJ는 10년간 개최하는 더 CJ컵을 단순한 골프 대회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문화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미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주력하고, PGA 투어 선수들과 함께 더욱 친근한 콘텐츠로 한식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프렌즈 아이드롭’ 올해 브랜드 대상 수상

JW중외제약 안구점안액 부분 1위

JW중외제약은 인공눈물 브랜드 ‘프렌즈 아이드롭’이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안구점안액 부문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2003년부터 식품·금융·건강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온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식으로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 선정 투표에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수상 브랜드를 선정한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소비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모바일 투표와 일대일 전화 설문에서 올해 안구점안액 부문 1위로 선정됐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2007년 출시 이후 영양을 공급하고 산뜻한 느낌을 더한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전재호 한국소비자포럼 대표(앞줄 왼쪽)와 이용수 JW중외제약 의원약국사업본부장(앞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공눈물로 관련 시장에서 성장해왔다. 이 제품은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포도당과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대목동병원,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선정

맞춤형 3D 가이던스 연구 진행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진우 교수(사진)가 총괄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팀이 최근 ‘202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0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총 1조2000억이 투입되는 대형 규모의 연구 사업이다. 의료 기기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독자적인 의료기기 개발 뿐 아니라 관련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연구 개발에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중앙대병원 구강외과와 ㈜커스메디, ㈜브이알에드 등 민간 기업이 ‘X-REBONE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연구팀은 복잡골절 및 골결손 환자를 위한 두개 안면부 및 사



지 관절의 정밀 수술 치료 솔루션을 개발한다. 연구팀은 5년의 연구기간 동안 총 5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연구팀은 환자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맞춤형 3D 금속프린팅 기술, 인공지능 기반 자동구획화를 확장현실(XR)과 융합해 심각하고 복잡한 골결손이나 손상에 대해 사전 자동화된 시뮬레이션과 정확한 재건을 위한 맞춤형 3D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연구책임자를 맡은 김진우 교수는 “환자 맞춤형인 3D 금속프린팅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AI와 XR을 이용한 실시간 정밀 수술 치료 체계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고려대, 면역세포 편집·조작 미세유체 칩 개발

정아람 바이오공학부 교수 연구팀
미세유체 채널 내 유체 유동만 이용
세포 종류·크기 무관 고효율 전달

고려대는 정아람 바이오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줄기세포나 면역세포의 유전자 편집 및 조작을 위한 미세유체 칩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 ‘ACS Nano(IF:14.5)’에 현지시간 10월 9일자 온라인 게재됐다.

줄기세포 또는 면역세포와 같은 일차 세포는 일반 세포주와 달리 수명이 제한적이며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 세포의 유전자 편집은 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형질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암 면역치료는 최근 혈액암과



정아람 교수 허정수 석사과정

같은 난치암 완치에 성공했는데, 이를 상용화하고 다른 고형암 치료의 적용을 위해 대량의 면역세포의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정아람 교수팀이 개발한 미세유체 세포내 물질전달 플랫폼은 기존의 기술들과는 다르게 전기 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고 미세유체 채널 내에서 형성되는 유체의 유동만을 이용해 유전자 조작 물질들을 세포 내로 전달한다.

해당 기술은 전달물질의 크기와 세

포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효율로 전달이 가능한 높은 범용성을 증명했다. 특히, 일차세포인 줄기세포(사람 뱃줄유래 줄기세포,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쥐 골수유래 수지상세포)에 대해 기존 상용화된 전기전공 기술과 고분자 캐리어 이용 기술보다 높은 형질전환 수율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1분에 약 백만개 이상의 세포를 대량으로 형질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포치료 연구분야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세포 기능 편집을 위한 다양한 나노 입자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이용해 직경 300 nm에 달하는 나노 입자를 세포질 내로 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다양한 나노 입자 기반 세포공학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ihj@

GC녹십자, ‘GC5131A’ 추가 생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생산분 주로 치료목적 사용

GC녹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추가 생산을 마쳤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두 번째 배치 생산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데, 이번 생산에 사용된 혈장은 240리터에 달한

다. 이는 첫 번째 투입량보다 약 4배 더 많은 수치다.

회사 측은 임상시험 목적으로 만든 첫 번째 배치와 달리 이번 생산분은 주로 의료 현장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하에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임상 2상 승인이 나온 직후부터 의료진들의 사용 가능 문의

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혈장치료제는 제제 특성상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한 만큼만 생산할 수 있다. 혈장 확보를 위해 GC녹십자는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하여 혈장 채혈 기관을 기존 4곳의 의료기관에서 전국의 46곳의 ‘헌혈의 집’으로 확대한 상태다.

김진 GC녹십자 의약품부장은 “혈장치료제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치료제”라며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쓱더블랙’ 프로모션 이미지 /SSG닷컴

SSG닷컴 ‘쓱더블랙’ 프로모션 진행

SSG닷컴이 오는 18일까지 5일간 최대 80% 할인하는 ‘쓱더블랙(SSG THE BLACK)’ 대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브랜드 인지도 및 높은 할인율을 고려해 카테고리별로 대표상품 25종을 선정했으며 대표상품 외에도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인다. 선착순 할인쿠폰 및 타임쿠폰, 카드 청구 할인을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코오롱FnC 서브 브랜드 엘텍스 론칭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서브 브랜드 ‘LTEKS(엘텍스)’를 론칭한다고 14일 밝혔다.

LTEKS는 코오롱스포츠, 특히 라이프텍 재킷 시리즈에 기반을 둔 어반 퍼포먼스 아웃도어이다. 코오롱스포츠의 라이프텍 재킷은 조난 시 생명보호를 위해 개발한 상품으로, 지난 2006년 출시 이후 매년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스마트웨어로의 발전도 꾀한 바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